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목 도 인도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복69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인도자

말씀봉독 신명기 33:29 다함께
 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
 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설 교 나는 행복한 사람 인도자
 추석을 통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며,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면서 40년간 그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 40년의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해보니 이스라엘은 과연 행복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후원자로써 이스라엘을 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누구나가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 권모술수를 쓰기도 하고, 소유가 적다고 느끼면 불행한 인생이라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라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서 광야를 떠돌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집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자들은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든든한 후원자로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사실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행복의 파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르침과 사랑을 기리는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누구나가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선포> *주님은 나의 후원자!! *주님은 내 돕는 방패!!
*주님은 내 영광의 칼!! *나는 행복한 사람!!

찬 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함께

- 1 나의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안에 있는공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x2)
- 2 나의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일 당한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갈하나
나의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하시네(x2)
- 3 나의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사랑 어찌큰지 말로 할수없도다
성령감화 받은영혼 하늘 나라갈때에
영영부를 나의찬송 예수 인도하셨네(x2)

주기도문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